

# “다른 축제들 미안합니다”

강원도 태백산 눈축제 첫 주말 10만명 ‘대박 조짐’

이상 기온에 예정대로 개막한 축제 ‘단 두 곳 뿐’



11일 강원 태백시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광장에서 열린 제27회 태백산 눈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축제는 19일까지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태백문화광장 등 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상기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 아닌 겨울폭우까지 내리면서 대부분의 강원 겨울축제들이 ‘율상’을 지었지만, 태백산 눈축제만큼은 많은 인파가 모여 ‘대박의 조짐’을 보였다.

11일 태백시 눈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개막 첫 주말을 맞은 이날 하루에만 10만 1400여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개

막 첫 날인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방문객은 총 1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전년대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날씨 덕에 많은 축제들이 흥행 침체한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다. 이날 최고기온은 오후 1시58분 기준 3.6도를 기록하는 등 축제장은 어느 때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문전성시였다.

예년에는 산악회 등 단체 방문객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에는 확실히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축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한 뒤 예정대로 순차하게 개막한 도내 겨울축제 중엔 태백산 눈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 단 두 곳이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관광버스들이 길게 꼬리를 무는 기세로 진입로는 버스에서 내린 인파로 어깨를 부대끼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역시나 암도적인 규모의 초대형 눈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주 행사장인 당골광장에는 추억의 만화 속 캐릭터 눈조각과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테마로 한 거대 얼음조각들이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당골광장 주차장도 버스와 자가용들로 가득 채웠다.

11일 문화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선 김연자, 신지 등 겨울축제를 뜨겁게 녹여줄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경북 영주에서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김모씨(40·여)는 “요즘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강원도 겨울축제들이 꽤 어려운 시정인 것 같은데 오히려 태백산 눈축제는 작년 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면서 “내년에도 큰 기대를 하며 또 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상 기온과 겨울폭우로 인해 도내 굵직한 겨울축제들은 축제 메인프로그램인 얼음낚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막 일정을 연기하는 등 근심과 허탈감으로 가득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서울 종구 ‘을지면옥’ 앞으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 알박기 vs 노포(老鋪) 보존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

지난해 1월 ‘노포(老鋪) 보존’ 논란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지됐던 서울 종구 세운지구의 을지면옥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 커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의 토지주연합은 3월 전후로 법원의 강제 매입을 승인받아 철거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재개발 재설계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토지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주는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시의 경우 가능한 을지면옥과 토지주 측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든 을지면옥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시도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계속 협의는 했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결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시는 만약 을지면옥이 철거하게 되더라도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통해 ‘흔적’을 남겨줄 것을 토지주 측에 권장한 상태다. 문의문 박물관의 사례처럼 최대한 을지면옥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을지면옥이 매입되더라도 세운3

세운3 토지주聯 강제매입

3월 법원 가격 결정만 남아

서울시 “양측 금액차이 커”

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시는 철거로 인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선행되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시는 “계속 대화를 통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불안감 고조…인천시, 대응체계 강화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발병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으며 시의료원·인하대병원·길병원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6병

상)의 가동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입국자 정보를 통해 방문객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검역소와 협조해 우한시 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의심환자 발생 유무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환자 발생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대 적발해 36억 과태료

서울시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 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 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호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뿐만 아니라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경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

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경인 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